

조선의 국찰(國刹) 회암사(檜岩寺)가 역사의 광풍 속에 침몰하던 날 밤 천보산 능선의 청승들은 파랑새 몸을 떨었을 것이다. 억조창생을 기원하던 조선 왕실의 염원도 불국정토를 위해 향화를 사르던 3천 사문의 비원도 치솟는 불길과 함께 한 줌의 재로 사위던 밤, 구름은 서편 하늘을 향해 달렸을 것이고 바람은 텅 빈 일주문 밖 전나무 가지를 치며 울었을 것이다.

매사자를 찾아서
장지연의
잊혀진가람 탐험



양주 회암사터 <상>

400년전 위용 드러낸 조선國刹

마을이 가까워 질수록 숲의 나무들은 낮 짙 단단 흔적이 많다고 하던가. 회암사지 인근의 울퉁한 전나무들은 무심한 농부의 낫질에 더부자란 세월의 가치를 질러기도 했고, 전나무 스스로 삭정이로 제 몸의 상처를 허물기도 하였다. 때 되면 찾는 이 없이도 흐드러지게 활짝웃음을 터트리며 자수법락하던 산밭나무들도 더러는 발굴의 삽날에 발등이 찍히기도 하였다. 더러는 저만치 물러서 때되면 또다시 계곡이 꼭 차도록 파안대소할 그 날을 꿈꾸며 벌레 먹은 이파리들을 쓰다듬고 있다.

조선 왕조의 원찰이며, 이 나라의 국찰이라고 까지 불렸던 회암사는 폐사된 지 400여년 만에 발굴작업이 한창이다. 두렵게 쌓였던 숲길을 걸어나고 함부로 일가를 이었던 달개비 꽃넙들도 들어오니 창졸간에 당한 폐허의 순간을 기억하기 싫은지 머리가 깨진 불두(佛頭)는 담장지 밑에 얼굴을 파묻고 있다. 보광전 추녀 끝에 매달렸던 청동금탁(靑銅金鉢)도 피울음을 삼킨 그대로 입안 가득 김부흥 녹을 머금고 있다. 대궐의 모양을 본떠 짓고, 태조 이성계가 상앙으로 물러나 회한의 가슴을 쓰러내리며 말년을 기대었기에 왕실의 살림살이가 그대로 옮겨진듯 청기와, 받, 잔, 합 등 분청사기, 청화백자, 흰화백자가 깨지고 부서진 채 지하 곳곳에 탐을 이루고 있다.

의정부 북쪽,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 14-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회암사터는 1964년 사적 128호로 지정되었다. 나옹선사의 제자 각전(覺田)스님이 불사를 모두 마쳤을 때는 무려 전각이 262칸이 되었고, 15척이 되는 불상 7구와 10척의 관음상이 모셔졌다고 한다. 이 기록은 1998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1단지에서부터 8단지까지 드러난 회암사의 위용은 목은 이색이 <회암사 주조기>에서 극찬한 바와 같이 "집과 그 모양새가 미려하여 동방에서 첫 번째"라고 한 표현이 과장이 아닐을 짐작케 한다.

회암사터의 순례는 그 명성이 국찰인 만큼 아무래도 한 두번의 발걸음으로 끝내기는 벅차기만 하다. 아직도 발굴작업이 진행 중인 까닭도 있지만 조금씩 비밀을 드러내

는 폐사에 얽힌 사연이나 먼지 덮인 문헌의 기록들도 어느 것 하나 예사롭지가 않다. 우선은 이 곳이 인도 땅 유서깊은 불교의 명소인 나란다 대학의 지형을 닮은 길지임을 알고 회암사가 다시 서는 날 불법과 나라가 흥왕하리라 고 예언한 지공화상을 비롯 삼사(三師)를 찾아가 그동안 수시로 회암사 터를 배회했던 연유를 고해야 할 것 같다.

인도 마가다국 출신의 스님 지공화상(?-1363)이 이슬람교의 침입으로 폐교가 된 나란다대학의 마지막 졸업생이 되어 그 허

전함을 달래기 위해 동방으로 온 것은 '역왕오천축국'이 아니었을까. 이미 부처님 나신 나라의 불법은 쇠했으므로 회광반조(回光返照)의 광명을 발하는 동쪽으로 구도여행 길에 나서 원나라를 거쳐 고려에 들어온 것은 새암은 말랐어도 바닷물은 결코 줄지 않음을 몸소 확인하고 싶었음이라.

1328년 고려 충숙왕 15년, 고려의 국경으로 들어 온 그는 금강산 법기도량, 개경 감로사(甘露寺), 양산 통도사 등 전국의 유명 대찰들을 방문하며 최초의 외국인 승려가 되어 고려불교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지



◁왼쪽부터>무학·지공·나옹 스님 진영. 회암사와 깊은 인연을 맺고있는 스님들이다. 이 진영은 1904년 선암사에서 조성 봉안했다.



▷지공·나옹·무학 스님의 부도(왼쪽부터).



◁전각만도 262칸으로 조선시대 국찰로의 위용이 당당했던 회암사터. 폐사된지 400여년만에 한창 발굴중이다.

공화상이 전국순회법회를 마치고 원나라로 돌아가던 그해(1328년), 그는 회암사 지형이 '삼산양수(三山水)'로 마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인도 땅 나란다사의 흡사함을 발견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의 충격은 그로부터 20년 후에 중국 유학길에 자신을 찾아온 고려의 눈빛은 남자 나옹화상을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꿈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지공화상의 법을 부촉하여 회암사를 일약 전국 제일의 중심사찰로 중수한 고려불교의 거목 혜근(慧勤) 나옹(懶翁)선사(11920-1376)는 경상북도 영해 사람이다.

나옹스님은 고려로 돌아와 오대산 상두암에 머물렀으나 공민왕에 의해 왕사로 봉해져 회암사에 머물게 되었다. 나옹선사가 회암사에 주석하며 스승 지공화상의 원에 따라 대규모 중창불사와 함께 교화전법에 심혈을 기울이자 회암사는 곧 전국의 중심사찰로 주목받게 되었으며 국운과 함께 어려움을 겪던 고려 불교에 활력소를 불어넣게 되었다. 그러나 나옹선사는 4년에 걸쳐 중창불사를 마치고 회향법회를 올리던 날 왕명에 따라 회암사를 떠나 밀양 영원사로 가 계되었는데 세인이 다하여 여주 신흥사에서 입적하였다. 세수 57세였다. 격변기 고

있다'고 이르자 지공선사는 그가 벌레 도를 이룬 것을 알고 '고려인은 모두 역적놈 죽여버린다'고 하였다. 나옹스님과 함께 지공스님의 법제자이자 스승으로 법연을 맺은 두 선지식의 법맥전수 의식은 만년지 2년 뒤 고려에 귀국한 다음 천성산 원효암에서 이루어졌다.

알려진 대로 무학대사와 이성계는 설봉산 토굴에 머무는 때 무너진 집에서 서꺼레를 지고 나오는 이성계의 등극을 암시하는 해몽을 해준 인연으로 조선 건국의 주역과 조연자가 되어 깊은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성계가 왕위를 태종에게 물려주고 권력의 무상함을 되새기며 위로받던 곳도 무학대사의 체취가 서려있던 회암사였다. 1398년 무학대사도 왕사의 자리를 내놓고 금강산에 들어가 머물다가 1405년 금강산 금장암에서 열반에 들었다. 세수 78세였으며, 그 문하에 사명당, 한학 기화와 같은 걸출한 제자들을 두었다.

회암사터에서 왼쪽으로 800여 m를 올라 가면 순조 28년(1828)에 창건한 오늘의 회암사에 이른다. 본래의 회암사가 존재했다면 부속 암자정도로 적당했을법한 아담한 절이다. 절 이름을 이미 폐사가 된 회암사라 한 것은 회암사 재건의 의미를 지닌 것인데, 1922년부터 회암사 삼사의 진영을 영성각에 모시고 매년 차례를 모시고 있어 아쉬운대로 옛절의 명맥을 더듬게 해준다.

딱따구리 생나무 쪼는 소리가 북탁소리처럼 계속 울리는 산 능선에는 4-5m의 간격을 두고 삼사의 부도가 사이 좋게 자리 잡고 있다. 옛주인들의 자취도 향훈도 끊겼으나 도란도란 법담을 나누는 듯한 정겨운 모습은 쉽게 발길을 옮기지 못하게 한다.

<시인·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사진=고영매 기자

전각 262칸·15척불상 7·10척 관음상 모셔 1998년부터 발굴...깨진 불두·도자기 산재 지공·나옹·무학 3師 부도 법담을 나누듯

어머니 정씨가 꿈에 새매가 날아와 머리를 쪼으면서 알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그 알이 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가 고려말 불교의 혁신가이자 문필로 명성을 떨친 나옹스님이었던 것이다.

나옹은 20세때 이웃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불문에 들어 회암사에서 대정진 끝에 깨달음을 이뤘으니 그때가 불과 24세였다. 나옹선사는 1348년 원나라 유학 길에 올라 법원사에 머물고 있는 지공선사를 찾아가 법을 받고, 다시 임제종의 평산처림(平山處林)에게 법을 받아 드물게 두 스승의 심인을 전수 받아 1358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공활한 중국을 주유하며 불법을 궁극한

려말 불교를 지키며 사부대중을 정신적으로 이끌었던 나옹스님은 고도의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 문학성이 높기 평가되는 계승문집 <나옹집>한권을 남겼다. 오늘 날 천불가 인기곡으로 널리 불리는 노래중 하나인 '청산은 나를 보고'도 스님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공, 나옹에 이어 회암사의 법맥을 이은 또 한사람의 선지식은 이태조를 도와 조선 건국에 깊이 관여한 바로 자초(自超) 무학(無學)대사(1327-1405)이다. 무학대사가 스승인 나옹선사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이역 땅 중국의 법천사에서였다. 그 역시 중국 만행 길에 올라 지공선사를 찾았는데 '3천8백리 밖에서 친히 화상의 진법목을 보



험한 바다를 건너, 삶의 파도를 넘어
그 길을 함께가는 철이 있습니다

낮선 세상 끝, 낯은 철선 하나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만선의 기쁨을,
때로는 거친 파도에 맞서 온 인생-
그 세월 속에서 철선은 단지 배가 아닙니다.
인생을 함께 해온 벗입니다.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